

##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한자권서 지속적 포교 기여”

합천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諸經板)’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다.

제8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6월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회의를 열고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儀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등재는 고려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2011년을 앞두고 국내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결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번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판을 포함한 8만7000여 장의 불교 경판을 일컫는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해인사대장경판(국보 제32호)은 불교 경전이 한자로 새겨져 있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으로, 수천만 개의 글자 하나하나가 오·탈자 없이 고르고 정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해인사대장경판 이외에도 고려시대 새긴 목판 2835매가 있다. 이 ‘고려각판’은 모두 54종 2835판으로, 이중 28종 2725판이 국보 제206호로, 26종

110판이 보물 제7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경판’은 해인사가 소장한 경판 중 팔만대장경판을 제외한 불교경전, 역사, 고승문집, 판화 등을 새긴 경판을 지칭한다. 팔만대장경판이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겨진 것과 달리 제경판은 지방관청이나 절에서 새긴 것이다.

국제자문위원회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한자권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포교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세계기록

로 인해 경판 손잡이 부분의 철제가 부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국제적 보존·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해인사 장경판전=대장경판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은 15세기 건축물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이란? 고려대장경은 고려시대 불경(佛經)과 장소(章疏)를 집대성한 인간(印刷)된 불경을 말한다. 1011~1087년 조성된 초조(初雕)대장경과 1090년 전후에 편찬된 교장(敎藏), 1236~1251년 조성된 재조(再雕)대장경을 통칭한다. 재조대장경의 경판 수가 8만여 점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초조대장경과 교장은 전란(戰亂)으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과 국내에 초조대장경 3000여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소장 시간판의 인경(印經) / 현대불교 자료 사진

### 국제자문위원회 유네스코에 등재 권고키로

### 2011년 ‘직지’에 이어 불교기록으로 두번째

유산으로 등재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존상태 및 향후 보존계획=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 따르면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처음 제작됐을 때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보관 상태가 훌륭하다. 또한 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부 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해인사도 자체적으로 전문 관리기관을 두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부적절한 보수

으로 지정됐다. 흔히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등재된 것은 대장경판 보관시설인 장경판전이다. 모자 형태의 장경판전은 앞면 15칸, 옆면 2칸 크기의 두 건물(수다라장과 법보전)과 양쪽 끝에서 마주보고 세워진 건물(동·서 시간전)로 구성돼 있다.

해인사는 대장경판 보관시설(장경판전)과 보관용(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모두가 유네스코 등록 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 Tip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가 1992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인류의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 세계 59개국 120건이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2001년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선무도**  
 선체조/선요기/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광주 총본부 공과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25 www.sunmu.com  
 서울 본부 02)763-0980  
 서울 02)581-6521 평택 02)599-5554  
 송파 02)3431-4889  
 용인대리부 사원지회 02)290-5727  
 인천 02)2541-6301 양산 03)1924-5655  
 연천 03)1475-2600 광주 04)3285-1732  
 대전 05)3625-0718 포항 054)775-4989  
 울산 05)2276-6271 양산 05)382-5074  
 부산 051)464-1380 군산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7-659-9642  
 Austria Salzburg 06-215-5384  
 France Toulouse 05-61-08-1010

**I Love Buddha** / 받아들이기  
 용정윤(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8-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 ‘외국인 수행자’ 지원 나선다

#### 조계종 교육원 연석회의 발족

외국인 수행자들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발족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1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본회의실에서 ‘외국인 스님 수행생활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관계자와 외국인 스님 수행사

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행자들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종무회의를 통한 령 제정이나 중앙종회를 통한 종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호국불교’ 대토론회

대불총, 27일 프레스센터서  
 호국불교의 의미와 역사, 우리시대의 적용 등을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불교도의 자세’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호국불교와 민중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며 김택수(예비역 군법사)씨와 정천구 교수(영산대) 김영국(조계종 총무원장 정책특보)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회로는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윤세원 교수(인천전통대)가 참여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황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릴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독자위 토론 중계 ▶ 19면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탄산탄발라(德山托鉢語)와 파자소암(跛子擔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립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재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얽이 아니라 깨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해한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로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능허(能虛)가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 법문 중에서 -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내가 돌아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명 누워버렸다. 밝히는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따미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따미 식어지자 추위가 닦쳐왔다. 그제서야 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